

“금호타이어 사태 지역경제 ‘핑크’ 우려…대결중단 상생 결단을”

지역경제단체, 노·사 협상 통해 해결 촉구 성명

190여개 협력업체 손실 눈덩이…“조속 타결 희망”

노사교섭 재개키로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전면파업과 회사 측 직장폐쇄로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파업 철폐와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해결비용도 커지고, 갈등도 깊어지는 만큼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극한대립 치명대, 용기있는 결단으로 풀어야=광주시는 7일 오전 지역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호타이어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4개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즉각 중지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면서 “금호타이어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금호타이어 노사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룹차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노사는 150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상생의 정신으로 타협하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금호타이어 노사가 직장폐쇄 이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한 채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직장폐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지만 양측이 이처럼 자존심만 내세운 채 교섭을 회피할 경우 회사 자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또 중앙 정치권도 직장폐쇄 이후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는데 대해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역 협력업체 비상, 건전한 노사문화 보여달라=노사의 최약 대립에 지역 경제계는 피폐확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190여개 협력업체는 직장폐쇄와 파업 여파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협력업체는 물론 금호타이어를 납품받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측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피해액만 1000억원에 가깝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손실도 1인당 평균 300만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또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에 머무르면서 협력업체의 손실 또한 커지고 있다.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의 특성상 대기업에 복매고 살아가는데 임금도 못주고 물품도 납품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돼 변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노사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 대립해서는 안된다”며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직장폐쇄 철폐와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호타이어의 경영실적 악화 등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임금을 동결한다던 타이어 업계 경쟁사인 한국타이어는 경영환경 악화를 대비해 기본

급 5.8% 인상안에 합의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 노조가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해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선 금호타이어 노사가 중단된 교섭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열릴 것으로 금호타이어 측은 예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현장 달려가 중재 나선 윤장현 시장

“광주경제·청년의 미래 생각해주길”

노사 양측에 강력 주문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생각해주세요.”

금호타이어 파업사태가 해결 기미 없이 혼돈 속으로 빠지면서 ‘청년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민선 6시 모토로 내건 윤장현 광주시장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윤 시장은 조속한 노사협상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7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선행 조건으로 ‘사회적 대화’를 내세웠고, 대화의 핵심은 신뢰와 상생의 노사 문화에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시청 내에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노사문제를 관리했으며, 분규 현장에는 어김없이 추진단장을 파견해 중재해왔다. 지난 1월 금호타이어 단체협상, 8월 기아차 도급업체 파업도 이런 적극적 대처로 조기 해결됐다.

그는 이렇듯 노사안정에 혼신을 다했음에도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데 대한 서운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윤 시장은 이날 노사민정 위원들과 금호타이어를 방문해서도 시장이 30여분 늦게 회의장에 나타나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고민하는 것만큼 회사 측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시장의 이런 뜻을 회장에게도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측에도 노조원의 입장만이 아닌 대응적인 차원의 자세변화를 주문했다. /최희호기자 chae@kwangju.co.kr



노사민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은 윤장현 시장이 대화에 앞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전남 노후 저수지 개보수 나선다

농어촌공, 예산 1027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가 낡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1027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나주동강 지구 등 전남지역 수리시설 보수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본부가 따르면 이번엔 확보된 1027억원이 가뭄 상습지역 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100억원, 노후 된

수리시설 개보수에 906억원, 가뭄 대비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에 21억원이 쓰인다.

전남본부가 관리 중인 전남 전체 저수지 1048개 중 73.5%가 50년 이상 된 노후저수지로 보수 보강이 절실하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영농환경 개선은 물론, 상당부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기자 kroh@

코트라 ‘수출부진 타개’ 현장 행보

김재홍 사장 전남테크노파크 방문 11개 中企와 간담회

김재홍<사진> 코트라 사장은 7일 국내 기업들의 수출 부진 타개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 사장은 이날 순천시 발전기 제조사 썬테크를 방문, 수출 최전선에서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호남지역 수출 중소기업 1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수출 애로 간담회를 열고 코트라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해 “저유가와 세계 교역규모 감소 등 거시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지만 기동력 있는 중소기업이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



들이 해외 지역별, 나라별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수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들이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지사처럼 이용하는 ‘지사화 사업’의 지원 기업 수를 현재 2600개에서 2800개로 늘리고 지사화 담당 무역관 직원 120명을 국내로 불러들여 중소기업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해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카드로 추석 준비하세요”

29일까지 상품권·사은품 증정 등 각종 혜택

K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KJ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KJ카드야 추석을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추석 준비기간인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KJ카드로 건별 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총 39명을 추첨해 1등 3명에게는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등 6명에게는 기프트카드 10만원권, 3등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각각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누적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각 1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이용권과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알뜰 소비족이라면 눈여겨봐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추석 선물로 수요가 많은 광주·전남 정관장에서 KJ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며, 광주·전남 일부 마트에서는 KJ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관련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를 이용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83.22 (-2.82)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1)
▼ 코스닥 648.80 (-1.65)	▲ 환율 (USD) 1203.70원 (+10.3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3) 275-7766

당신의 광경! 젊음의 광경!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